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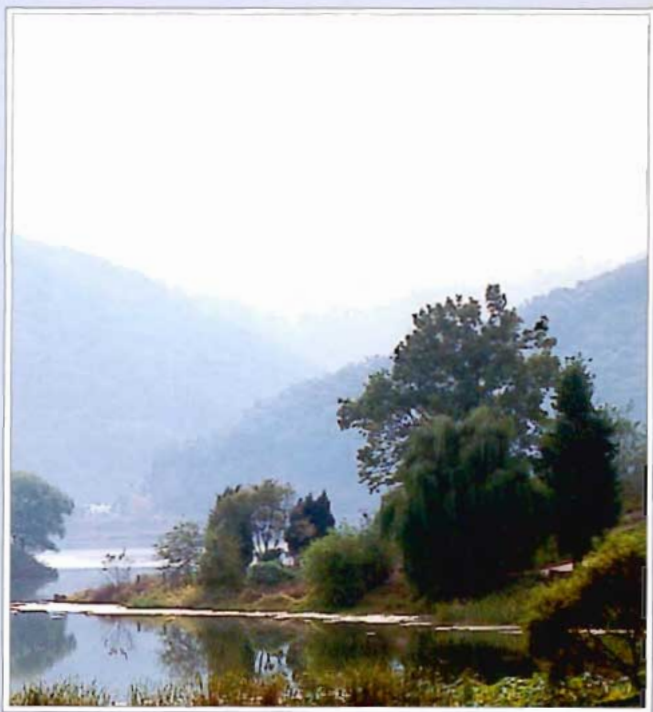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4

1999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고린도전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4

1999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고린도전서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소서.
4.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6.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7.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8.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들의 헌신과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더불어 시작된 1999년도가 벌써 4월을 맞았습니다. 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온 자연만물을 만지셔서 꽃을 피우시고 따듯한 봄기운을 일으키시듯이 우리들의 영혼에도 지속적인 은총을 베푸셔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충성,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복음의 새 일꾼들을 허락하심으로, 온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각 교구에서 시작되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힘껏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5대 목표를 향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땀흘려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지극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각 가정에서도 다시금 힘을 내시어서 예배가 살아넘치고, 말씀이 흥왕하여짐으로, 온 교회 구석 구석에서, 또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찬송되고 높여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9년 4월

위임목사 김성관

충현의 만나

1999년 4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고린도전서 서론

고린도는 그리스시대의 유명한 도시 중 하나였다. 시인 호머(Homer)가 예찬했듯이 고린도는 풍요와 화려의 도시요, 또한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머무는 숙소가 있던 곳이기도 했다. 지리적 문화적 요충지인 이곳에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다(2:2).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되었던 그는 이곳에서 복음의 동역자(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를 만나고 힘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초기 고린도교회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 잡혀 많은 은사가 넘쳤던 교회로 성장하였으나, 자신들이 살고 있던 도시의 문화를 교회 안에 수용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과 함께 바울의 지적과 권고를 받아야 했다. 이런면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교리적이라면 고린도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는 매우 실제적인 서신이다. 특히 본서에는 초대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문제점들이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어서 초대 교회의 역사와 내면세계의 연구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영적, 도덕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문제점들(5장-음행, 6장-송사, 7장-혼인, 8~10장-방종, 11~14장-무질서, 15장-그릇된 부활관)은 현대화, 과

학화가 고도로 진행된 20세기말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좋은 거울이 된다. 고린도교회의 성적 문제를 추월하는 성적 타락, 마약문제 등은 오늘날 현대가 안고 있는 문제의 중심에 있으며, 또 교회 내적으로는 대형화, 조직화가 가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성경적 체제와 천국시민으로서의 삶의 기준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는 신앙의 미성숙과 교권분쟁은 해결되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고린도전서는 현대 사회와 교회의 문제를 말씀 위에서 조명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흐름

1. 서론 / 1:1-9
2. 분열에 관한 소식 / 1:10-17
3. 분열의 이유 / 1:18-4:21
4. 간음에 관한 답변 / 5:1-6:20
 - 1) 근친상간에 관하여 : 5:1-13
 - 2) 신자들간의 소송에 관하여 : 6:1-11
 - 3) 성적인 부도덕에 관하여 : 6:12-20
5. 질문들에 관한 답변 / 7:1-15:58
 - 1) 혼인에 관한 권고 : 7:1-40
 - 2) 우상 제물에 관한 권고 : 8:1-11:1
 - 3) 공공예배에 관한 권고 : 11:2-14:40
 - 4) 부활에 관한 교훈 : 15:1-58
6. 결론 / 16:1-24

1

(목) 인사와 감사

찬송 / 506장 본문 / 고전 1:1-9

1-3 절에서 바울은 혼란과 파쟁을 겪고 있는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먼저 문안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서는 수신자들을 향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밝히면서 전하는 말씀에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 자신의 교회에 대한 독특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엡 3:10, 골 1:18)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각처에서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1:2)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롬 10:13)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의 몇 가지의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과 풍성을 깨닫게 된 것을 인해 감사하는 것이요(5절),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린도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에 관한 영적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을 인하여(6절)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린도교회와 바울 사도간에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9절). 우리에게도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인해 넘치는 감사가 요청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의 회복은 감사의 회복으로 부터 가능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고린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각 계파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울은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었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혔뇨?' 라는 반문을 통하여 오직 교회의 주체는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습니다(13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하나되지 못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이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진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나뉘시지 않으시는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분파를 초월해서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주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밝혀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로 하나되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뛰어 넘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의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도 않고로 결심했었습니다(2절).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지혜와 비교를 할 때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복음 전도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복음의 진수(眞髓)만을 증거하였습니다. 고린도교회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 주셨고, 그를 후원하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를 예비하셨으며(행 18:7), 회당장 그리스보를 불이심으로 흠어진 많은 유대인들을 다시 얻는 교두보를(행 18:8)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과 지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14절) 오히려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성령의 사역과 조명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이 아닌 능력의 지혜요, 구원과 영광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 넘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의 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고린도교회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던 교회였지만 여전히 불완전하여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교회가 안고 있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파쟁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이십니다(1:11-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잘못된 지도자관을 '들에서 일하는 농부' (1-9절), '건축자' (10-15절)를 통해 바로잡고자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7절)과 건축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재료들이 동원된다고 할지라도 그 영원한 터는 오직 그리스도 자신 외에는 없다는 것(11절)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은 이 진리에 대한 영적 미성숙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구성원들은 사람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주자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투자하는 일만 영원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살게 하소서. ② 중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것이 있을 때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맛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우리들의 사랑은 주로 내가 잘한 어떤 것, 나의 소유, 나의 남편 혹은 아내와 자식들, 나와 가까운 어떤 유명인사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 등에 집중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21절). 그리고서 그 이유를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는 일에 쓰이는 대리자입니다. 따라서 만물에게 복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이끌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건물, 혹은 사람을 사랑하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와 사랑을 헛 것으로 여기십니다(19-20절).

사실, 잘 알려졌다고 지금 고린도교회는 유명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추종하는 사도나 지도자의 이름을 자랑함으로써 자기 파당의 권위를 높이고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놓여 있습니다(23절). 따라서 우리가 정작 무엇인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적인 사랑을 헛 것으로 여기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우리는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대단히 예민합니다. 나의 언행과 내가 해 놓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가에 따라 우리의 기분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한 진정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1-5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겸손히 머물러야 합니다(6-8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러한 겸손의 삶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약해지고, 비천해지고, 방랑하고, 세상의 구경거리처럼 되었다고 고백합니다(9-13절). 그리고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나를 본받으라! 고 권면합니다(16절).

이 모든 증거와 권면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20절). 이 말씀은 우리들 대다수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능력이란 종종 나의 말 한 마디에 사람들이 금방 변하고, 나의 기도에 금방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서 말씀하는 능력이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천에 처할 수 있는 인내의 능력, 나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준비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 ▶ 기도 제목 / ① 나를 낮추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성적인 문란함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해지면 반드시 망한다는 역사의 가르침도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범죄는 오래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가득한 여관들과 술집들이 서울 근교 야산이나 심지어 농사짓는 시골에까지 파고든 지 이미 오래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와 광고들, 잡지들과 컴퓨터통신 등도 성적인 문란함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끔씩은 이렇게 가속되는 음란한 문화에서 멀찍이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 수는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10절),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파고드는 성적인 문란함을 경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경고합니다.

당시 고린도교회 안에는 입에 올리조차 거북스러운 성적인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1절).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통분히 여겨야 할 그 범죄의 심각성을 슬며시 덮어버린 교회의 태도였습니다. '악'의 파급 속도는 놀랍도록 큼니다. 따라서 교회는 악의 뿌리라도 버려야 할 뿐 아니라, 악의 요소가 등장할 때에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지 못하도록(6절) 초기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인이라 자칭하는 자 중에서 음행하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의도적으로 사기치는 자나 욕설과 비방을 일삼는 자들이 있으면, 단호히 대처하되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11절). 교회는 거룩하지 않을 때, 순식간에 교회다움을 잃고 말기 때문입니다.

악과 타협하는 것보다는 꾸짖어 섭섭하게 만드는 것이 옳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악은 그 모양조차도 멀리 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교회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연약성으로 인해서 항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법정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산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시비가 붙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고린도교회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게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놀림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가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고 선도해나가는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2절).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위치에 있습니다(3절). 따라서 이 성도들이 자질구레한 문제를 가지고서 세상법정에 호소하고, 그들의 판결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의 기품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차라리 손해를 보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성도의 이러한 입장과 교회의 속성을 악용하여서 의도적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사기를 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을 거룩한 교회공동체로부터 단호히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처리하는 성도의 기품을 지닙시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성도의 기품을 지니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변화된 자'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란과 우상숭배와 도적질과 탐욕과 술취함과 비방으로 특징지어지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으나(9-10절),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씻으심으로 '거룩'과 '의'를 얻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11절).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한 소유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는 것이 자유다'라고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과 신앙은 별개라는 식으로 여깁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동들 중 '음행'을 손꼽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생각으로 음행하는 것이 실제적 간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8).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그의 신앙과 별개가 아니라, 그의 신앙, 곧 그의 몸과 마음 전체를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독극물과 같습니다(16, 18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몸과 영혼을 책임질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피값으로 사신 바된 성령의 전(殿)임을 깊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된 것이 되도록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책임있는 행동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제도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생산하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생의 신비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으로 생기는 경건한 가정은 교회공동체의 기본단위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가장 힘있는 요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은 사뭇 소극적인 면에서 결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성적인 문란함이나 유혹을 방지하려면 결혼하라고 말하면서(1-5절), 혼인하지 않은 자나 과부들은 가능하면 혼자 살도록 하라고 권합니다(7-8절). 물론 혼자 살든지 결혼을 하든지 그것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17-24절). 바울이 이렇게 소극적인 면에서 결혼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적으로 지극히 문란한 당시 사회 상황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타락하고 음란한 고린도의 일반 생활 문화로부터 어떻게 그들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소극적인 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도, 믿는 배우자는 상대방을 거룩하게 할 도리와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12-14절). 그렇다면 부부가 다 믿는 경우에는 서로의 거룩을 향한 의무가 얼마나 강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결혼을 통해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힘쓰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바울은 항상 종말의식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하루 하루는 격렬한 영적 전쟁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자세는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그의 견해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는 처녀나 총각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로서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이에 따라 전심을 다해 섬겨야 할 주님에 대한 마음이 소홀해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관점에서 딸을 둔 아버지들을 향해 권면하기를 딸을 시집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죄짓는 것이 아니니 해도 좋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딸을 시집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딸 시집보내기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시집못가는 딸에 대한 안스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결혼적령기를 지나고 있는 딸을 둔 부모님들에게는 이해되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금 바울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반이 불신자인 세상 한가운데서, 믿는 처녀가 신앙 안에서의 결혼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믿음을 위해 혼자 살 수 있다면, 그것은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위한 결혼보다는 주님을 위한 믿음의 결단이 더 우선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께 대한 마음이 소홀해지지 않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하 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를 공동체 내에서 행사하는 과정에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고린도교회 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10장은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이 제기한 일련의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시장에서 팔리던 고기는 우상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해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이 지식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1-3절).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따라서 고기를 먹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4-6절).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배려하는 사랑의 동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7-13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 5:13). 혹 우리 자신의 지식과 자유로 인해 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일은 없었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내게 주신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약한 형제를 섬기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사 병으로 군대에 들어가 훈련이 끝나면 이동병 계급장을 다는데, 이때가 가장 힘들고 서글픈 때입니다. 모든 상급자의 심부름꾼이요 화풀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상급자의 지위에 올라가면 자신이 받은 곤욕을 그대로 하급자에게 물려주는 데 익숙해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지위에 부여된 권리를 누리는 것을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식에 근거한 자유'라는 문제(8장)에서 '지위에 근거한 권리'라는 문제(9장)로 주제를 옮기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은 '복음 전도자가 자신의 사역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 지도자를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를 거절하자 그들은 매우 당혹하게 되었고 급기야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전반부에서, 자신의 여러 특권을 열거하면서 자신이 인정받은 사도이며 사도로서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1-14절).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자신이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곧 구원의 복음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15-27절).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위해 권리를 사용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구원의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셔도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미성년자 관람불가인 영화나 비디오 테이프를 봐도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값비싼 모피나 화장품이나 보석을 구입해도 되는가 등등입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은 분명 이러한 논쟁거리들로 인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소심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 시장에서 사들인 고기는 결코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상당히 '자유로워서' 성만찬을 먹고 나서 이교도의 연회에 참석해 간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자유로운' 성도들에게 구약성경의 사례를 통해 자유 남용의 위험성을 일깨워 줍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1-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거울삼아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6, 14절). 성만찬에 참여한 자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연회에 참석하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15-22절).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귀한 자유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유를 남용하지 맙시다.

▶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귀한 자유를 남용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자체로는 가하지만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행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좋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약술을 마신다든지, 재미있다고 공공연한 모임에서 화투를 친다든지 하는 행위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습들과 관련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 본문에서 성경적인 입장을 정리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의 '자유'나 '권리'가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가하다'(23절)라는 말을 표어처럼 쓰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했던 고린도교회 일부 성도들의 입장에 일침을 가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2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자유로 인해 남의 양심이 상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28-30절),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32절),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31절)고 제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반 위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자유를 어떠한 기반 위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유로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자유로운 주인이며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복종하는 종이며 모든 것에 구속받는다”(마틴 루터)

▶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자유가 남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공중 예배 중에 머리를 천연색으로 물들이고 귀고리까지 한 몇몇 남자 십대들이 지금 예배당 앞좌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교우들이 이 광경을 목도하고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바울은 당시 공중 예배시에 있었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와 근동 지방에 살고 있던 여인들은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에 반드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도들은 공중 예배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참석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더 이상 전통적 풍습에 속박당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당시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저급한 여자(매춘부)임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민 머리는 간음한 여자에게 내리는 유대인의 형벌의 일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일부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자유로운 행위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조의 질서(3-10절), 곧 남자의 머리됨과 인간의 자연적 본성(13-15절), 그리고 다시 교회의 보편적인 관행(16절)을 들어, 교회의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여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분명 차이가 있지만 동등하고 상호 의존적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교회 내에서 남성과 여성은 분명 차이가 있지만 서로 동등하고 상호 의존적임을 깨닫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우리 교회는 매년 여섯 번의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 일년에 두 번 거행하는 현실에 비하면 많이 거행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성찬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찬식
은 중요하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될까요?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
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을 기념하며,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예식
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의 성만찬은 현대 교회가 실천하는 그런 상징적
인 식사가 아니라 실제 식사였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만찬을 기념할 음식
을 가져다가 공동으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에서는 부
한 자들은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먼저 갖다 먹고 가난한 자들은 가져온
음식이 없어서 굶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주의 떡과 잔에 동참하는 성
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식사가 가난한 자들
에 대한 부한 자들의 무관심과 사랑의 결여로 분열을 야기하는 식사가 되
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만찬이 어떤 영적이고 거룩한 의미가 있는지 분
별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식사인 것처럼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그
들 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병약한 자들도 생겼고 심지어 죽는 자들
까지도 생기고 말았습니다(30절).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성찬식에 참여
하고 있습니까? 주의 몸을 옳게 분별하고 참여하고 있습니까?

성찬식에 합당한 자세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 기도 제목 / ① 두 달에 한 번 거행되는 성찬식에 늘 주의 몸을 분별하
고 참여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
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오 늘날 교회에는 활용하지 못하는 감추인 인적 자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격려하여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게 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은 보다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 각자가 자신의 은사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활용할 때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은사의 오용(誤用)으로 야기된 고린도교회의 무질서와 분열을 바로잡기 위해 영적 은사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이교적 영향으로 열광주의적인 신앙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적 예배를 자신들의 영적 은사들을 회중 앞에서 과시할 좋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사실 고린도의 이교도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중에 환상의 상태로 빠져들거나 방언이나 예언과 비슷한 언어들을 떠벌리고 다녔습니다(2절). 이처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영성을 소유했다는 표지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과연 기독교적인 은사인지 아니면 귀신들에게서 나온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 기준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하는 것을 내세웁니다(3절). 이어서 그는 성령의 은사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가 주어지는데(4-7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며(8-11절), 성령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주어집니다(11절).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바로 알고 바로 사용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성령님께서 주권적인 뜻에 의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바로 알고 바로 사용하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사람의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가 아무리 많아
도 몸은 오직 하나입니다.(20절). 몸에는 눈과 같이 약해 보이는 지
체도 있고 귀와 같이 잘 안보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22절). 하지만 이러
한 지체들이 오히려 더욱 요긴하게 쓰이며 아름답게 쓰일 수 있습니다
(22-23절). 몸에는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합니다. 지체 중 그 어느 것이라도
빠지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너는 쓸데 없다’고 교만히 말할 수 없습니다.(21절)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것처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 몸이 영광을 얻
게 되는 것입니다.(26절).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7절).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자들과 부서들
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과 부서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지 않은 지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
는 일이 크든지 적든지 모두 다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역들임
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지체들의 역할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도와 주는 겸
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든든이 세워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
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의 아름다운 지체들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충현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협동하여 하나가 되게 하소
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
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고린도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로 인해 분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연합하여 덕을 세우는 것’ (12:7)임을 생각해 볼 때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신유,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서로 자신의 은사가 더 우월한 것이라며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12:31). 더욱 큰 은사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모든 영적인 은사와 함께 꼭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은 울리는 쟁가리입니다(1절). 사랑이 없는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2절).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주고 남을 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3절). 다른 모든 은사들은 사라질 것이나 사랑만은 영원할 것입니다(8절).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과 연합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5:12)고 말씀하신 명령을 기억하여 사랑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은사 중에 더욱 큰 은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풍성하게 하소서.
② 안식령 선교사(수리남)가 진행하는 인디안 선교에 필요한 교회와 진료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의 방언과 예언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방언이란 오직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2절). 그러므로 방언이란 듣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 즉 개인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3-4절). 따라서 개인의 유익을 위한 방언 기도를 대중 앞에서 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는 커녕 혼란을 가져 오게 됩니다(11, 17절). 왜냐하면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는 말을 알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간에 담이 생기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아 듣지 못하는 일만 마디의 방언보다는 다섯 마디의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이 더욱 유익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19절). 교회의 공적인 덕을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모두 다 알아 들을 수 있는 예언이 더욱 유익하다는 것입니다(3-4절).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으며 경건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때가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채우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담당하는 학교, 교회,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교 회 생활에 있어서 질서를 세우는 일에는 모두가 장성한 사람같이 힘있게 동참해야 하지만 반대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에는 모두가 힘없는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합니다(20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삼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알아 듣지도 못하는 방언 기도를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므로 삼가야 합니다(23절). 그러나 예언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24-25절).

혹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서 뜨거워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큰 소리로 방언을 하면서 마치 방언이 은혜 받은 유일한 증거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서 하나님은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이시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은사를 성경적으로 사용함으로 교회에서 어지러움이 사라지고 질서가 세워지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원주민 선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 열매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26절).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들은 하나님께로 온 귀한 것들이지만 은사들로 인해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게 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33, 40절). 교회에서 방언을 하려면 두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해야 되며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 기도를 삼가야 합니다(27-28절). 예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두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예언하되 다른 이들은 분별해야 합니다(29-30절).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위치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합니다(34절). 물론 남존여비의 비조화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각자의 위치를 지켜 조화를 이루라는 가르침입니다.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를 지킴으로 우리 가정에, 교회에 화평이 깃들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캄보디아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 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회심하기 전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잡아넣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에 중인이 되어 살기가 동등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복음 증거를 위해 사도 바울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고를 하여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하며 철저한 겸손으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나의 나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10절). 사도 바울의 '나의 나뒸'이라는 고백은 교회를 핍박하고 스테반의 죽음을 유도했던 죄인 된 모습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끄러운 과거가 그로 하여금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유익한 도구로 쓰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죄를 깨닫고 빨리 회개하여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범죄함을 인하여 더욱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며 겸손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음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범죄했을지라도 참 회개를 통하여 더욱 주께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고린도교회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며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것일 뿐 내세의 소망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단호한 말로 이러한 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꾸짖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의 복음 증거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13-17절).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계속 죄인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17-18절). 그러므로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19절).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오백여 형제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았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렇게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부활의 확신없이 신앙 생활을 함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를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 기도 제목 / ① 부활의 확신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업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잠자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범죄하였고(롬 5:12) 두번째 아담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첫 아담의 죄로부터 죽고 또한 살리심을 입은 것입니다(롬 6:11). 따라서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 되고(14절), 죄의 용서도 있을 수 없고(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할 수밖에 없고(18절), 만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19절).

이 부활은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과 영광의 부활로 먼저 일어나고, 그후에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환난과 핍박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 저 건너편에 예비된 영광을 향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고 사는자들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② 허요셉 평신도 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한 바울이 이제는 부활의 본질에 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먼저 36-38절에서 “부활의 방법”에 대하여, 그리고 45-49절에서 대표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밝혀 줍니다. 부활은 각 식물들의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어 그 형체가 없어진 후에야 새로운 싹을 틔우고 새로운 식물들을 만들어내듯이 인간의 죽음도 역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영광스런 부활로,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 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전인적인 부활입니다(20,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육체를 포함한 부활이었듯이 그 첫 열매를 따르는 성도들의 부활도 전인적인 영과 육체가 연합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롬 8:11).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와 나중 열매가 되는 성도들의 부활은, 죄와 사망이 첫 아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어 왔던 것과 같은 방식(대표성의 원리)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두번째 아담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결박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성도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42절),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43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빌 3:20, 21). 이 믿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근신하며 살아갑시다.

▶ 기도 제목 / 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② 복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을 믿고, 우리의 부활이 확실한 것을 믿을진대, 앞으로 성도들은 그들의 삶이 부활에 대한 기대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51-54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살아남은 자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5-58절에서는 승리의 개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왕의 왕으로 선포되고 죄와 사망은 영원히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깨어 근신해야 하고(벧전 5:8),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살전 5:18),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마 24:35).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이요 사망을 폐기시킨 부활이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에게 있었던 사망 권세에 대한 부활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완전한 부활의 승리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매일 매일의 삶이 인내하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는 내일 우리의 부활 승리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고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부탁한 내용들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교회” 혹은 “우리 교회”라는 말을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교회와 예루살렘교회는 결코 별개의 다른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도 예루살렘교회도 다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미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하되 자신들의 힘에 넘치도록 했습니다(1절, 갈 2:10).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사랑입니다. 개교회주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치됨을 허무는 최대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환난을 당하는 우리들의 지체들을 돌아볼 마음을 추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의 헌금생활에 넘치게 하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처음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던 바울이 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또다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준엄한 경계를 그의 독자인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의 고린도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도적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행한 모든 말을 들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부탁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깨어 있으라, 둘째,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셋째, 남자답게 강건하라, 넷째,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미성숙의 상태를 벗어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강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5-18절에서 그의 권면은 고린도교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던 이방인 선생 스테바나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대접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교회의 첫 열매답게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사랑하라”는 말로써 그의 권면을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대망하면서(마라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매일 승리하게 하소서. ② 4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5월 한 달 동안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서문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하여 기록한 누가복음에 이어서 그 후 30년 간의 기독교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소문이 로마 세계 전반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구원 역사의 진실성을 변증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스스로가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이방제국 구석구석까지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자세히 주목하여 기록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선교의 동역자로 많은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요내용

- 1:1-6:7 교회의 탄생
- 6:8-9:31 박해를 넘어서 확장되어가는 교회
- 9:32-12:24 베드로의 사역과 이방인들의 교회 가입
- 12:25-16:5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여행 및 사도들의 결의
- 16:6-19:20 복음이 아가야의 서부와 동부에 심겨짐
- 19:21-28:31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과 성취

제 1 과

사도행전(5) 고난의 결실

찬 송 / 147장

읽을 말씀 / 16:6-18:22

공부할 말씀 / 16:25-34

먼저 읽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와 근신 가운데 지냈습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은 금식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을 위한 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내버려 죄인들을 살리시는 완전한 자기 부인의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막연하고 감상적인 슬픔을 맛보려고 하기보다는 '십자가를 지는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으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서 빌립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억울하기 그지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결실이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함께 생각하기

1. 바울과 실라는 '귀신들린 여종을 온전케 한 죄' (!)로 심한 채찍질을 당하고 창고에 채워져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습니다. 이 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른 죄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25절)
2.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갑작스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었는지 자세히 묘사해 보십시오(26절).
3.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간수의 반응을 아래의 구절에 따라 차례로 기록해 보십시오.
27절 -

30절 -

33-34절 -
4.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린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지극히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인내를 넘어서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것은 오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의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옥문이 열린 상태에서 모두가 제자리를 지킨 것을 보면, 아마도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은 이미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압도당할 만한 영적 권위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영적 권위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러한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3. 바울과 실라의 고난에는 '간수와 그의 가족의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창피당할 것 같은 생각에 복음 전하는 것을 꺼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감수해본 때는 언제입니까?

제 2 과

사도행전(6) 에베소 사역

찬 송 / 241장

읽을 말씀 / 18:23-20:38

공부할 말씀 / 19:8-10

먼저 읽기

바울이 에베소로 가기 위해서는 '윗지방' (19:1) 곧 메소기스산으로 추정되는 고원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험한 길을 넘어 도착한 에베소에서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결실있는 사역 중 하나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 외에는 들은 바 없었던 에베소 교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후,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면서 12명의 제자를 얻었고(7절), 그곳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교회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몇 번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기회는 위기나 고난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헤치고 충성스럽게 나아가게 되면 그 안에 감추인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빕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바울이 처음 강론하기 위해 사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8절 상반절)
2. 그가 그곳에서 가르친 내용은 무엇입니까?(8절 하반절)
3. 바울의 강론을 듣고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공개적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힐난하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9절)
4. 바울은 얼마 동안이나 제자들을 따로 모아 날마다 강론했습니까?(10절 상반절)
5.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10절 하반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세 안식일(석주: 17:2) 동안이었던 반면, 에베소에서는 그 일을 석달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석달 간의 권면 끝에 있었던 반응은 '순종치 않음'과 '공개적인 비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아무런 미련없이 그들을 떠나 따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나는 내가 쏟아부은 수고에 비해 반응이 신통치 않을 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2. 에베소에서의 복음의 역사는 회당의 다수가 아니라 두란노서원에 모인 소수에 의해서 촉발되었습니다. 핵심은 '말씀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순종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배움'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보다 숫자나 규모를 더 의식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의 능력보다는 현실적인 수단들을 더 중히 여겨 꾸준히 말씀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3 과

사도행전(7)

일사각오의 신앙

찬 송 / 395장

읽을 말씀 / 21:1-23:35

공부할 말씀 / 21:1-14

먼저 읽기

옳은 길인 것은 틀림없으나 그 길을 가면 외로움과 고난이 심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편입니까? 옳은 결정을 하고 옳은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외로워질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외로워질 것을 각오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편에서 있는 그리스도와 신실한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큰 격려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그 사역의 막바지를 향해 여러 반대자들 틈에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밀레도로부터 항해를 계속하여 소아시아 남서부의 한 항구인 바다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니게까지 가는 배로 갈아탄 후 두로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스테반이 순교당할 당시 시작된 핍박으로 인해 피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곳까지 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스테반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졌던 바울과 그들과의 만남은 대단히 새롭고도 의미깊은 것이었습니

다. 어쨌거나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였습니다. 두로의 형제들은 바울을 극진히 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절한 위로자들을 우리에게도 보내 주실 것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권면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4절)
2.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던 바울에게 누가 찾아 왔습니까?(10절)
3. 그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예언' 을 했습니까?(11절)
4.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과 함께 있던 자들이 바울에게 권한 것은 무엇입니까?(12절)

5. 그들의 권함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13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바울과 그의 제자들 및 동료들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대하여 각각 상반된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겪게 될 위기 상황에 대하여 알도록 하셨고, 그 사실에 대하여 동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누가 더 잘한 것입니까? 만일, 이것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2. 성령께서 미리 알게 하신 '앞에 놓인 고난' 과 동료 및 제자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사각오의 신앙' 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마음 깊이 결심하였던 바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위험을 의식하여 예루살렘행을 잠시 보류하거나 중단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욕먹을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행했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향해 나아갈 때에, 중도에 보류하거나 포기할 만한 매우 합당한 이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옳게 나아갑니까?

제 4 과

사도행전(8)

담대하나 겸손한 변론

찬 송 / 401장

읽을 말씀 / 24:1-26:32

공부할 말씀 / 26:24-32

먼저 읽기

바울은 자기의 재판에 대하여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마로 호송되기 위해 베스도의 관리하에 대기하던 중, 그는 그곳을 방문한 아그립바에게 비공식적인 심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그립바는 유대교 전문가로 알려진 자로서 흥미진진한 자세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아그립바 앞에서 자신이 부름받게 된 사건에 대한 간증을 말한 후, 자신이 지금까지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왔음을 매우 설득력있게 논증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은 자신이 받은 소명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문제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바울 자신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유대인들의 고소는 근거없는 것임을 주장합니다. 바울의 진실 어린 증언에 대한 두 권력자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또한 그들에게 증언하는 바울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함께 묵상합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바울의 증언을 들은 베스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24절)
2. 바울은 베스도에게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25-26절)
3. 연이어, 바울은 아그립바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27절)
4. 바울의 질문에 대한 아그립바의 대응은 무엇이었습니까?(28절)
5. 그에 대하여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29절)
6. 왕과 총독 등 바울의 증언을 들은 자들의 바울에 대한 최종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30-32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베스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해서 바울을 '학문에 미친 사람'으로 몰아부쳤습니다. 그리고 아그립바는 자신의 권력이 가져다 주는 자존심을 위해서 바울의 증언을 '적은 말'이라고 축소시켰습니다. 진실은 자주 사람들의 이기적인 입지나 자존심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축소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인으로서 명백한 진실과 사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찌면 은근한 자존심과 질투심을 앞세워 은연 중 눈가림을 하거나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습니까?
2. 바울은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개의치 않고, 자신이 말할 바를 담대하게 선포하되, 상황에 적합한 예절을 갖추어 선포했습니다. 담대함과 겸손함은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겸손하나 담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된 결과, 겸손을 앞세워 당연히 말해야 할 상황에서 꼬리를 내리거나, 혹 담대함을 앞세워 함부로 내뱉아버리지는 않습니까?

제 5 과

사도행전(9)

끝까지

찬 송 / 397장

읽을 말씀 / 27:1-28:31

공부할 말씀 / 28:17-31

먼저 읽기

로마로 호송되던 중,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난파당했던 바울과 그 일행은 육지에 오른 후에야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멜리데는 페니키아(베니게) 말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이는 옛날 두로와 시돈의 선원들이 그 부근을 정기적으로 항해하면서 그 땅이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사실을 고마워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알려줍니다. 어쨌거나 난파에 부서진 배를 맞이하여 호의를 베푸는 멜리데섬은 복음을 듣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멜리데에서 겨울을 보낸 바울과 일행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에 따르면,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전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형제들은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환대 속에서, 그리고 근위대 영내가 아니라 병영의 바깥에서 따로 살도록 허용한 로마군대의 배려 속에서 방문객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나날을 보내면서 그의 마지막 세월을 하

나눔께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바울이 초대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17절)
2.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진 복음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듣고자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21-22절)
3.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했습니까?(23, 31절)
4.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 중에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24절)
5.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울이 선포한 말씀은 무엇입니까?(25-28절)

6. 바울이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진다'는 말을 할 때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로마서 9:1-3에 비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초대할 사람'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혹, 이미 그런 시도를 해 본 분이 계시면 자신의 사례를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복음을 전할 때,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취한 태도(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다는 선언)는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좀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한 예가 있으면 나누어 주시고, 또 오랜 시간동안 전하고 있는데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분들을 통해 지혜를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5 과

사도행전(9)

끝까지

377

찬 송 / 397장

읽을 말씀 / 27:1-28:31

예배: 부활 말씀 / 28:17-31

목 상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1.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 보는 것으로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

3.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4.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히 11:1)

5.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롬 10:17)

행하고 ...

6. 성도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롬 1:17)

7.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까(히 11:6, 요일 5:4)

8.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벧전 1:9)

9. 당신은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고후 13:5)

...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으로라

10. 보는 것의 구체적인 예 몇 가지를 들어 보십시오.(요일 2:16)

11. 삶 속에서 보는 것으로 행했을 때, 나타난 결과는 어떠합니까?(렘 17:5, 6)

적 용

12. 신앙 생활 중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믿음으로 행하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서 잘 안되는 것들이 있다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MEMO

MEMO

1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같이
주 기도	다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